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355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3. 4. 28(금) 14:00 ~ 17:15
- 장 소 :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김미라 위 원
김진각 위 원
배은주 위 원
서승미 위 원
이훈경 위 원
장미진 위 원
장인주 위 원
정갑영 위 원
정정숙 위 원
정종열 위 원
홍성태 위 원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제 35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술관 세미나실을 리모델링 해서 처음으로 이곳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배은주 위원 : 아니요, 편하게 왔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행이네요.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는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실연심의 결과보고 등 의결안건 7건, 보고안건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때 안건에 대한 찬반의사 표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과 국민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알리오’라고 하는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기관의 주요 경영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통합공시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비상임위원의 활동내용에 대해 공시하는 항목이 신설되어서 위원별 회의참석 현황과 찬반 내용도 국민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공시를 위해서 회의진행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의사 표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1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보고사항 중에서 국회지정사업 안건이 1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국회지정사업 담당부서와 주관단체의 보고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고 올바르게 집행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위원님들의 현장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을 위해서 국회지정사업의 주관단체가 오후 3시경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김효은 노동조합위원장이 근로자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제언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김나영 부장을 포함한 사무처직원 1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2인 중에서 12인 모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이미 보고를 드렸으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4쪽입니다.

지난 3월 31일 개최된 제353차 전체회의의 경우 의결안건이 3건이 상정되어 2건이 원안의 결, 1건이 부결되었으며, 제354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으로 상정된 의결안건 1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999호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본 사업은 1차 서류, 2차 인터뷰/실연심의 과정을 거쳐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창작뮤지컬, 창작오페라 분야의 동시대를 대표하는 우수 창작신작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오늘 처음 들으시는 위원님도 계셔서 추진경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8쪽입니다.

2023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들이 9월에 확정되었고 심의계획을 11월에 의결 받아서 지원심의 1차 서류와 2차 인터뷰에 대한 심의결과를 12월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 45건의 작품들이 선정되었고요. 작품별로 각각 2,000만 원씩 실연심의를 대비 준비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들에 대한 심의추진계획을 올해 3월 10일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9건의 심의대상건수에 대해 실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내년 1월, 2월에 발표될 우수신작에 대한 창작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회의자료 9쪽입니다.

지원심의를 추진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요. 본 사업은 전담심의위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심의기간이 횡수로 약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담심의위원제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심의위원 풀 외에도 현장성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외부 인사로 구성 가능한 제도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의 연극부터 전통예술까지 6개 분야에 대한 전담심의위원 명단이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다만, 올해 음악 분야 실연심의 때 정인숙 위원님께서 개인사정 상 불참을 했습니다. 그 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실연심의는 장르별 특성에 따라서 창작뮤지컬과 연극은 낭독형으로, 음악, 무용,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분야는 실연형으로 각각 실연심의가 진행되고요. 3월 7일 창작뮤지컬을 시작으로 4월 21일까지 음악을 최종적으로 해서 'CJ 아지트 대학로'와 '마포아트센터'에서 각각 실연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의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들은 11쪽 하단의 표 안에 장르별 시간과 방식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주요한 심의기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성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만큼 작품의 수월성에 대한, 예술의 수월성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한 사업들이고요. 본 사업의 특징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관객평가단 점수가 20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 분야별 25명 내외의 관객평가단이 참여해서 같이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심의 결과 총 49건이 심의대상에서 실연심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총 28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회의자료 12쪽 하단을 보시면 있는데요. 전체 총 사업예산이 29억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지원 결정된 예산은 28억 1,300만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올해 심의의 주요 방향성은 “창작산실의 브랜드 가치에 맞는 작품을 선정하자.”라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예술가 사례비와 제작비 등 예산을 고려한 현실화를 위해 80% 이상 정도의 지원신청 대비 결정금액을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하실 사안들 가운데 약 9,190만 원 정도의 잔여예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장님의 결재와 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사업들이 동 사업목적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오늘 의결이 된다면 5월 2일에 저희 누리집을 통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안들은 붙임자료로 있는 14쪽부터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이훈경 위원 :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잔여예산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창작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로 10년간 쌓아온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원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작품의 수준이 이 브랜드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약간의 잔여예산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면 연극에서 약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무용에서 550만 원, 음악에서 1,140만 원, 전통예술에서 약 4,000만 원 정도고요. 전통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지원신청금액이 크지 않게 지원해서 잔여예산이 발생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서승미 위원 : 저도 질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전담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언제 도입이 되었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전담심의위원회는 이미 과거부터 계속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사업들은 올해 창작산실 같은 경우인데요. 심의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심의의 연속성, 통일성을 같이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축제의 규모가 크다보니 내부 풀 안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담심의위원회체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승미 위원 : 추천은 누가 하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사무처와 위원님들이 각각 2배수씩 추천을 해서 합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면 전체 심의위원에서 몇 % 정도가 됩니까? 전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각각 분야별 7인씩 결정이 됩니다.

서승미 위원 : 감사합니다.

김진각 위원 : 다른 곳의 심의 추세를 보면, 가령 올해 심의를 했던 분들은 내년에는 빼거나 교체를 하는 룰이 있거든요. 연구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 아르코는 어떻습니까?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아르코도 가급적이면 전년도 심의위원들은 배제를 하고 있고요. 고르게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신작 같은 경우에는 창작자, 연출, 작가, 기획자, 극장관계자 등을 고르게 각각 배정해서 심의위원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런 내용들이 심의위원 성명, 생년, 지역 등이 나와 있는데 비고에 표시되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심의를 했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다음 의결 회차부터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부분은 다른 부서들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에 대해 2~3년 정도는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00호 2023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 공모 창작오페라분야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창작오페라대본공모사업은 무대공연 발표 및 레퍼토리로 발전 가능한 참신한 작품을 발견해서 무대화 전 단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도 2022년 9월 저희 정시공모추진계획(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들은 포상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완결된 작품들을 결정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접수는 다른 공모보다 접수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2023년 1월 31일까지 작품들을 저희가 접수 받았고요.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음악과 대본 모두가 완결된 형태로 저희에게 제출되어야 심의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규모로 오페라에 배정된 예산은 1억이고요. 실질적으로 각각 작품별로 2,000만 원씩 작가 1,000만 원 그리고 작곡가 1,0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완결된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들이다보니까 이것은 사실 심의의 과정보다는 심사와 같은 역할들을 통해서 사업들이 결정되었는데요. 역시 이 사업들도 전담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져서 심의가 진행됩니다.

회의자료 33쪽입니다.

심의위원은 창작오페라 분야의 7인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보시면 세부분야가 음악극의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극작, 연출, 지휘, 작곡, 성악 분야에 대한 분들이 위촉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심의는 전수검토와 온라인채점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심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작가와 작곡가가 신청했는지를 모르고 오로지 작품에 대해서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도 작품의 예술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 80% 정도가 예술성에 비중을 두고 있고요. 무대화 발전가능성 20%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총 6건이 했습니다. 올해 대본공모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창작오페라가 아직은 조금 현장의 작품을 만들어놓은 게 숙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2건은 지원신청서 자체가 타 사업 또는 이 건에 맞지가 않아서 2건은 결격되었고 심의대상건수는 4건으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건이 최종 결정되었고요. 그래서 6,000만 원이 이번 오페라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안건 중에서 중요한 안건이 잔여예산의 포상금이 4,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4,000만 원은 저희가 별도로 쓸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기가 어려운 예산 비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극과 창작뮤지컬의 대본공모가 6월에 진행될 텐데요. 지금 현재 연극이 약 215건 그리고 뮤지컬이 63건 정도가 지원신청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연극과 뮤지컬 쪽에 각각 2,000만 원씩 배정하고 작품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까지도 오늘 의결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

늘 의결이 되면 발표예정일은 5월 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01호입니다. 2023년 예비예술인 현장 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이제승 예술인력 양성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안건번호 제1001호 2023년도 예비예술인 현장 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 지원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총 38건에 55억 결정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대학, 민간단체, 지역재단, 청년예술가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에게 창작, 실연, 기획, 기술, 행정,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멘토링, 아카이빙, 향유, 일자리, 창업 등 성장 및 확산과 연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형은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과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발굴육성 지원 등 2가지 유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3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총 27일간 접수를 받았고요.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과 단체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총 13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필수 서류를 미제출한 결격 2건을 제외하고 총 129건에 대한 지원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원심의는 전담심의회원제도로 사무처와 문화일반 분야의 위원님들의 각 1.5배수 추천을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한 섭외순위 결정으로 41페이지 하단에 총 7인의 심의위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비율은 신진 86%, 여성 86%, 비수도권 14%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심의는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을 4월 5일에 실시했고요. 사전 전수검토를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8일간 심의위원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 1차 서류심의를 예술가의집에서 진행했고, 4월 21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46건에 대한 인터뷰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원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하단에 유형①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은 59건 지원신청 중에 20건이 선정되어 비율은 33.9% 정도 선정되었습니다. 유형②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발굴육성 지원은 72건 중에서 18건이 선정되어 건수로는 25%, 금액으로는 23.9% 선정되었습니다.

지역균형제도 적용 결과는 심의대상건수 129건 중에 비수도권이 41.1%였고 선정의 비율은 38건 중에 17건으로 44.7%로 비수도권이 신청대비 선정이 더 되었기 때문에 지역균형제도는 만족하였습니다.

심의제척 및 회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부터 지원결정 세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심의가 지난 주 금요일에 종료된 관계로 지원심의회 총평 첨부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회의의 총평을 별도로 지금 배포해 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심의위원들께서 고심해서 신중하게 선정하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도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있는데요. 저희 예술위원회 기금사업은 다중지원 총량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인, 동일단체에 대한 지원은 통상 3억 원 이내로 제한을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초에 공지를 할 때부터 최대 2건까지 선정할 수 있음을 공지했고 신청 접수된 59건의 대학 중에 11개 대학이 중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에서 2건이 선정되어서 각 2억씩 총 4억 원이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다중지원 총량제한 3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의 의견은 다중지원 총량제한 기준에 따라 수정의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인데요.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의 각 2억을 각 1억 5,000만 원씩 해서 총 3억 원으로 지원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잔액 1억 원에 대해서는 유형②의 예비예술인 9,000만 원 지원결정 선정 건을 추가 선정하는 내용으로 의결해 주시면 관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총량제한 3억 원이 사실 15년 정도에 설정된 금액이고 최근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균금액이 4억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공모사업 때 총량제한의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44쪽의 붙임1을 보면 상명대학은 2개로 되어 있는데요. 7번과 8번이요.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맞습니다.

정갑영 위원 : 이렇게 1개 대학에서 2개씩 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대학은 과의 특성이 많고 해서요. 과의 숫자도 많고 특성도 많아서 최대 2건까지 선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총량제한 3억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1.5억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사안입니다.

정갑영 위원 : 이것은 심의를 잘 하셨을 테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여기 심의위원 총평을 보면 예술대학, 민간단체, 지역재단, 청년예술가단체 등 예술환경의 주체들을 언급하셨는데요. 심의위원을 보면 백화점 상무도 계시고 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장도 계시고 건축도시이론연구실 등 얼핏 보기에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2번의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아트콘텐츠실장으로 백화점 내의 전시 관련된 일을 하시는 전문가시고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문화진흥원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 현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건축도시이론연구실의 △△△위원님은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등 건축과 관련된 저서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신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데 예비예술인 지원이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좀 안 와 닿네요.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예술인들도 지금 많을 텐데요.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아무래도 대학교 관련된 사업이라서 이해관계충돌이나 제척사유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기관이라든가 관련해서 서울사이버대학의 교수님 등으로 위촉을 추천드렸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교도소문화재단, 도시건축 등 심사위원으로 딱 적당해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1개 대학이 2개씩 낸 곳도 있고 시비를 가려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지원을 한 단체도 많고, 굳이 적합성 여부가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을 왜 했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제가 직원은 아니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처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심의위원을 위촉한 것이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2배 이상으로 추천을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을 하신 분들 안에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서승미 위원 : 아니요. 저는 추천하라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정정숙 위원 : 이런 경우에는 문화일반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십니다. 각 장르에 계신 분들은 장르 심의를 할 때 추천을 하시죠.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시각예술이나 무용 쪽에는 전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예비예술인은 문화일반에 해당되는 위원들께서 몇 배수로 추천을 했고 사무처에서도 그만큼 추천을 해서 그 안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각 위원 : 7인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이 몇 명인가요? 여기에 제가 추천한 분은 한 분이 있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저도 한 분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다른 분은 어떤지를 모르겠는데요.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절반 정도입니다.

김진각 위원 : 자격에서 적격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 같은데요. 글썄요. 전체적으로 보면, 가령 ○○대학교 같은 경우에 대표교수가 무려 3건이나 냈거든요. 그중에 1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는 2건이 선정되었는데 같은 교수가 4건을 또 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지원신청은 제한 없이 다 받았고요. 선정은 최대 2건까지 가능하다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위원이 추천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자격이 담보된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많고 많은 인원이 있는데요. 제3자가 봤을 때 이것은 예비예술인 지원인데 하시는 일을 봤을 때 좀 맞지 않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남요원 감사 : 감사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진행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전문가전담심의제도 내지는 심의위원들의 추천과정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해서 사무행정은 위원님들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감사행정에서는 특별하게 의견제시 등은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련번호 3번의 ◇◇◇씨 같은 경우에는.

정갑영 위원 : 저는 ◇◇◇씨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직을 보면 교도소나 도시건축 등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남요원 감사 : △△교도소. 그래서 아까 김진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과 관련해서 심의위원 이력을 적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안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씨는 현직이 △△교도소문화재생산업단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분은 마을축제 그리고 문화도시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오랫동안 그 분야에 종사했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씨가 참여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심의과정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시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위원회 의결과정에서는 심의위원의 이력 등이 적시되어지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문화진흥원의 원장도 하였고요. 공공미술도 하였고 단양 쪽의 도시재생 마을미술 등도 하셨던 전문가이기는 합니다. 말하자면 예비예술인과 관련해서 현장과 연계시켜서 수행할 때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표시는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2가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총량제 3억을 말씀하신 것에서 1억 5,000만 원씩 하고 나머지를 넘기는 것에 대한 의견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찬성을 하는데요. 총량제를 4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쉽게 올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복되는 건에 대해서 중복이 2건까지 가능하다고 공지는 되어 있으나 같은 학교에서 2건까지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정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교수가 다른 프로젝트 4~5개를 내서 동일한 교수의 이름으로 2건이 선정된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총 신청이 131건인데 그중에 동일한 교수의 사업이 중복 지원되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처음에 말씀하셨던 다중지원 총량제한에 대해서 총 3억 원으로 했을 경우 1억 5,000만 원씩 조정된 내용은 저희도 신중하게 해서 3억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두 번째로 단체의 대표 같은 경우 학교산학협력단은 대표자가 한 분이라서 그렇고요. 실제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책임자는 각 과별 교수님들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인 이유로 대표자가 같게 표기된 측면이 있고요. 선정은 2건까지만 가능하도록 해서 실제로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1곳만 중복 선정되었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렇다면 그것 또한 표기를 해 주실 때 같은 내용의 사업임이 인지되어야 하는데요. 서류상으로만 보면 동일한 대표자의 사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이것도 기재를 할 때 관련된 연구책임자나 학과도 병기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건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대로 심사위원들의 현직만을 적시했는데요. 현직 위주로 선정을 한 이유는 웬만한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학교에 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배제하고 지금 현재 현직에는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로 하다보니까 딱 봤을 때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학교의 교수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느냐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의 이력을 보지 않고 현직만 봐서는 생소하거나 생똥맞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자세하게 해서 그분들의 이력을 별첨으로 같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것을 결재할 때 “왜 1개 학교에 2건이 선정되었는가?”라고 했더니,

지금 이것은 산학협력단이 지원하는 겁니다.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산학협력단 1개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과별로, 무용을 하는 데도 있고 미술을 하는 데도 있고 연극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같은 학교라고 해서 정말 상대적으로 더 나은데 배척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건까지는 고려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1개 학교에 몰아주는 것보다는 다중지원 총량제한을 적용해서 처음에는 원래대로 하는 것 자체를 심의위원들이 그냥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디만, 제가 이것은 다중지원 총량제한 적용하는 것이 그래도 떨어진 다른 학교에게 한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제가 결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안만 보시는 저하고 똑같은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같은 학교에서 최대 2건까지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원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예비예술인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균형 있게 지원을 해 준다고 봤을 때는 “최대 2건이라는 선정기준이 맞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학의 연구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토리 키 재기일 수가 있거든요. 대학에서 한다는 연구라는 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여러 대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홍성태 위원 : 이것은 금액도 50억이나 되고 131건이 들어왔는데 시간을 보니까 첫째 날은 3시간 30분이고 둘째 날은 9시간 30분 등 13시간 동안에 131건을 처리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7인인데 그중에 1인은 뒷날은 못 오셨고요. 6인이 55억을 처리하셨는데 내년에는 심의위원을 골고루 증가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도 지금 장르별로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문화일반으로 들어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니 프로젝트를 공모할 때요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내용은 장르가 다 섞여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심의위원을 나눠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이것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연도 중반에 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3월과 4월은 다들 바쁘실 때라서 섭외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에는 정시공모 때 하게 되면, 위원회 전체 심의일정과 같이 하면 더 많은 위원님들을 모시

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데 1개 대학에 2개씩 지원하는 게 맞아요? 최대 2개로 지원하기로 했던 게.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상명대학은 4개를 했네요?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신청에는 제한이 없었고요. 선정은 최대 2개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서승미 위원 : 의견이 종합적으로 나왔지만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예술 대학의 예비예술인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심의위원 풀 자체가 장르 쪽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음악도 굉장히 많잖아요. 음악 부분에 꼭 대학교수가 아닐지라도 그 부분에 전문가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심사에 대한 납득이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선정을 했겠지만 다음 차에는 그런 것까지, 심사위원 풀 구성 자체를 더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시죠.

배은주 위원 : 지금 지원심의공고를 애초에 낼 때 보통 3개까지 신청할 수 있고 2개까지 선정한다는 것을 보통 공고(안)에서 접할 수 있는데 4개까지 신청하고 2개를 선정한다는 공고(안)이 애초에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굳이 4개까지 러프하게 해서 신청건수가 50몇 건이고 선정건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요. 공모(안)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은 2개를 하지만 신청은 몇 개까지 해도 상관이 없다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결과를 낳는 거고 보통은 3개까지 신청할 수 있고 2개까지 선정할 수 있다는 게 보통의 공고(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이것도 예비예술인을 상대로 하고 대학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도 장르 구분이 있으니까 장르별로 심사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1개 학교에 2개의 건까지 있을 수 있다. 다른 단일 사업의 경우 3건까지 신청하고 2건까지 선정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갈 수는 있지만 처음에 예비예술인들, 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처음 이 예산편성의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일반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다음부터 이것은 1건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죠.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무작위로 한다는 게 뭔가요? 뭘 돌립니까?

오영주 예술기반본부장 : 이번 심의위원 후보가 25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5인을 무작위로 돌려서 순위가 나왔는데 그분들에게 전부 다 연락을 했습니다. 다 연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되시는 분이 7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섭외전화를 다 돌렸는데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정갑영 위원 : 무작위로 하는 장치가 있어요?

송시경 사무처장 :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오영주 예술기반본부장 : 그 부분은 촬영까지 다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종열 위원 : 사실 저희들이 지원사업 신청명만 가지고 지원심의회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상상할 수도 없고요. 사실 심의총평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 같은데요. 미리 좀 주셨으면 저희들이 미리 보고 할 텐데요. 당일에 주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회의자료 마감이 월요일이었는데요. 심의가 지난 주 금요일에 끝났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회의와 같이 심사과정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만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번 사업 공모할 때는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위원장님, 수정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심의위원회에서는 각각 2억 원씩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총량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가중치를 뒤서 3억으로 제한하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시는 거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2억 원씩의 사업규모를 가중치를 뒤서 1억 5,000만 원씩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해당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02호 2023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을 보시면 주요내용에 고물가가 상당히 지속되면서 필수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 부담 확대에 따라서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으로 생활안정자금을 30억 원 추가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을 지난 2월 위원회 전체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재부에서 일정이 조정되어 그 후속으로 위원님들께 변경안을 보고드리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쪽을 보시면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이 기존에는 180억 원인데 여기에서 30억 원을 추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쪽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쪽과 57쪽은 우리의 전체 예산표에서 여유자금운용에서 30억이 빠져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30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58쪽에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의 현재 진행현황이 되겠으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2019년부터입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면 상황이 도래했습니까?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60쪽을 봐 주시면 되겠는데요. 60쪽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 총 4개년 동안 용자가 나간 금액을 보시면 전체 720억 원입니다. 7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는 678억이 대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원리금이 회수되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167억 원이 회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돈은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61쪽을 보면 연체 현황이 정리되어 있고, 연체율은 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실이 나거나 상각이 떨어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특수채권이 된 것은 사망을 하셨거나 아예 파산을 한 내용입니다. 대출금액을 보시면 소액입니다. 240만 원, 450만 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망을 하시거나 파산 등의 이유로 3,700만 원 정도가 상각되었습니다.

김진각 위원 : 연체율이 낮기 때문에 일단 이 제도는 정착이 되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배은주 위원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맞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이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전입 받아서 예술인복지재단으로 교부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본 안전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섯 번째 의결안건은 안전번호 제1003호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 역시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산운용지침을 해마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재정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와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금의 상품 그 다음에 적립금의 규모 등을 가지고 한국펀드평가라는 외부기관에서 자산운용 관련한 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 등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 의해서 검토된 수치들을 지침에 반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매년 초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자산운용계획(안) 내용을 자산운용지침에 업데이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2.41%의 목표수익률이 되겠는데요. 올해는 3.80% 그리고 단기자금은 3.69%, 중장기자금은 3.95%로 설정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용위험한도는 39.01억 원 그리고 단기는 11.53억 원 그다음에 중장기자금은 27.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이 수치들이 붉은 색으로 반영된 내용이고요. 69쪽을 보시면 기재부의 권고에 따라서 “기금의 운용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산운용의 투명성이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운용사와의 이면합의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한다.” 이 내용을 각 기금관리 주체에 업데이트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여기에 1.54%, 3.69% 이런 것은 금리를 말하는 건가요? 수익률?

정병국 위원장 :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정갑영 위원 : 제가 숫자에 약한데요. 2022년도 2.41%에서 2023년도 3.80% 그러니까 중장기자금이 2022년도에 3.08%에서 2023년도에는 3.95%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 허용위험한도라는 것은 뭐니까?

강순규 기획조정부 과장 : 저희 기금에서 VaR라는 개념으로 위험한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예산평잔이 비슷한 수준이라서 허용위험한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허용위험한도라는 개념이 뭔가요?

강순규 기획조정부 과장 : 'VaR'이라고 10일 이내에 95% 확률로 최대 손실가능 금액입니다. 이것은 보통 금융권에서 기금관리를 할 때 쓰는 개념입니다.

정갑영 위원 : 돈을 맡겼는데 왜 손실을 봐요?

정병국 위원장 : 주식이 떨어지든지, 이런 범위를 설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라는 지침인 것이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요동칠 수가 있고요. 이 금액을 오버하게 되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문하는 전문가 기구가 따로 있고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태 위원 : 위원님들께 68페이지 자산배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강순규 기획조정부 과장 :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단기자금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단기자금이 40%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지출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경기가 하강위험이 있어서 단기자금을 60% 정도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유동성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비 지출이 나가는데 무리가 없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홍성태 위원 : 중장기자금은 줄이고요?

강순규 기획조정부 과장 : 예, 줄었습니다.

홍성태 위원 : 왜요?

강순규 기획조정부 과장 : 단기자금을 설정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중장기자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요.

정병국 위원장 :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냐에 따라서 나름 분석해서 배분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총액으로 따지면 단기성에 얼마가 배정되면 중장기로 가야 될 액수가 얼마인데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를 전문가그룹에서 자문한 것을 가지고 안을 짜는 것이죠.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누구는 이런 자문을 하던데요. 이런 것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예 이것을 우리가 직접 운용하지 말고 투자전문회사에 그냥 완전히 위탁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어때요?

강순규 기획조정부 과장 : 완전위탁형제도가 작년부터 도입되어 운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을 보고 저희도 판단하려고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다른 데가 그렇게 전면 위탁한 기구가 있어요?

강순규 기획조정부 과장 : 나주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하고 aT공사 같은 경우 완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올해 처음으로 한 건가요?

강순규 기획조정부 과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자문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자문은 해 주지만 위탁을 받게 되면 굉장히 책임감 있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그래서 올해 완전위탁을 한 기관들의 성과를 한번 보시고 다음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전문위탁사에 위탁을 할 것인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순규 기획조정부 과장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여섯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04호 보수규정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성규 인재성장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성규 인재성장부장은 나주 청사에서 비대면으로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규 인재성장부장 : 안건번호 1004호입니다. 회의자료는 71페이지고요. 1004호 안건은 저희 보수규정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 6일에 노동조합과 202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었는데요. 단체협약을 체결한 내용 중에는 휴직기간 중에 보수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가족수당의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무원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들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병휴직입니다.

저희가 업무상 상병휴직의 경우 평균임금의 8할을 지급하던 것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 외 상병휴직 같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기본급의 25~50%를 지급하던 것을 최대 2년간 기본급의 50~70%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임휴직 같은 경우에는 업무 외 상병휴직으로 인정해서 기존에는 무급으로 지급하던 것을 최대 2년간 기본급의 50~70%로 지급하도록 한 후에 근속년수 또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수당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가족수당 중에 자녀에 대한 월 지급액을 각각 1만 원씩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수규정의 현행화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에 성과연봉이 폐지됨에 따라서 포괄임금제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2페이지를 보시면 신·구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각 안에 대해서 파란색은 기존에서 바뀌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과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하는 일은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집행하는 마지막 최일선의 기관인데 업무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들은 정상적인 공무원 기준으로 일하고 산하기관들이 그것에 못 미치게 운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봤고요.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예술인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바람 나고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예술인들도 기분 좋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부분이 공무원 기준에 비해서 조금씩 모자라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 기준으로 상향조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 도저히 안 되는 일비지급은 정상화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노조 쪽에서도 그런 상황을 다 인지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셔서 노사협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조위원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효은 노조위원장 : 안녕하세요, 제23대 김효은 노조위원장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 보수 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발언을 한번 드리겠다고 말씀드려서 발언권을 얻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희 보수규정이 단체협약 건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임금협약을 하기 전에는 앞으로 보수규정이 없을 것입니다. 중간에 사측 이슈는 있어도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조합원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주신 정병국 위원장님, 송시경 사무처장님, 이윤희 본부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건비는 기재부에서 총액인건비 제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건비 상승률이 1%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전 정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따라서 저희 내부에서는 2018년도에 노사전협의체가 구축돼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내부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슈인 일반직Ⅱ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의 일반직Ⅱ 직원은 시설 공무원 포함 111명이고 그중에 노동조합 조합원은 101명입니다. 일반직Ⅱ는 위원회 담당만 넘어서면 자료에서는 공무원, 무기계약직 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일반직Ⅰ, 일반직Ⅱ는 임금테이블이 직급별로 동일하게 맞춰져 있고 승진 기회도 열려 있어서 저희 기관이 타 기관대비 모범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돈의 색깔에 있습니다. 돈의 색깔이라는 표현은 “일반회계냐? 기금이나냐?” 이런 표현을 할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시기 쉽게 가지고 왔는데요. 문재인 정권 때 정규직화 움직임이 큰데 비해서 공공기관의 T/O는 대폭 늘릴 수가 없어서 일반직Ⅰ의 인건비는 기관운영비 보수로 책정되어 있고 일반직Ⅱ 다수는 사업비 상용임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째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처우개선을 위한 일부 비용만 보조해 주는 게 다일 뿐 인건비를 늘려주지 않아서 여전히 기관 내에서도 I, II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Ⅰ과 일반직Ⅱ는 모든 게 동일한테 가장 큰 문제는 일반직Ⅰ에는 없는 일반직Ⅱ에는 7급이 있고 그 인원 또한 첫 채용시점부터 지금까지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인데요. 돈 색깔이 달라서 별도의 직급별 T/O 없이 승진재원의 규모에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정년승진 때마다 일반직Ⅱ의 7급 직원 승진에 열을 올렸지만 처우에 불만이 있는 일반직Ⅱ 6급, 7급 직원들 다수가 직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T/O는 또 다시 일반직Ⅱ로 채울 수밖에 없어서 일반직Ⅱ 7급 승진만을 외치는 것이 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제도를 추진한 주체라고 치고 “현 정권에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까?” 상당히 난감한데요. 위원님들께서 현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국정운영 관련해서 두루두루 문제가 있고 노동 관련해서는 철학적 깊이감이 없는 것부터가 총체적난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감사님께서 나주본관 마지막 식사를 저희 집행부와 함께 하셨는데요. 대통령 해외순방 때 문체부장관이 안 가는 얘기가 나왔는데 곧 정병국 위원장님이 해외출장을 가십

니다. 장기출장인데요. 저희 노조는 이것을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시기 전에 보도자료를 내시는 것도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는 아닐 것 같고, 혹시라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시면, 저는 이 나라가 우려스럽지 기관장 해외출장이 우려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쁘실 때는 저희 사무처장님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23대 노동조합 출범이후 문노협, 민주노총에서 관련된 고민을 나눴을 때 이를 고민하고 있는 노조가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슈는 하반기에 문노협을 통해 문체부, 민주노총을 통해 기재부와 교섭할 대정부교섭의제로 투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부위원장님이 저 대신 참석한 민주노총확대대표자 회의에서도 인건비 통합 이슈를 민주노총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2012년도 입사자이기 때문에 일반직Ⅱ는 입사일 기준에서 체계 모두 후배 직원들입니다. 노조위원장으로서 선배 직원으로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저희 보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협력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사실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영진위, 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기관 노동조합협의체인 문노협에서 몇 개 기관 주도로 8기 위원회 위원님들, 영진위 위원님들, 문체부 산하기관의 비상임이사님들의 연대서명을 받아서 일반직Ⅰ과 일반직Ⅱ의 돈 색깔을 맞추는 인건비통합투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건비 관련한 노사문제는 노사협의도 저희 내부직원 찬반의 문제도 아닌 공공기관의 진정한 사용자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영역이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반기에 별도로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분간 없을 보수규정 의결을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저희 사무처직원들의 보수 문제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의욕적인 사업을 전개했는데 이것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않고 그 상태로 넘어오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돼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문제를 우리 직원들과 부서별로 오찬을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일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우리 위원회의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바로 일반직Ⅰ, 일반직Ⅱ 직급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부에서 시작이 되었던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임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똑같은 갈등요인을 가지고는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노조 측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들이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해 연대서명을 해서 정부에 건의하는데 이견이 없으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노조위원장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하고 판단하시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효은 노조위원장 :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사무처장은 위원님들께 보고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오늘 보고안건은 7건이 있습니다. 국회지정사업 1건과 2023년 원로예술인공연지원사업 추진계획 그리고 각 소위원회와 TF 회의 결과보고 등 총 7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으며, 국회지정사업의 주관단체인 서울국제문화교류회에서 참석하여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바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지정사업 보고를 들으시고 관련해서 질의 및 제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사무처가 보고를 먼저 하세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첫 번째 보고안건인 2023년도 국회지정사업인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20회를 맞고 있는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병역특례법에 따라서 발레와 현대무용에서 1위를 한 수상자에게 예술요원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경과는 2023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정부의 부처(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4월 현재 지원신청서를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2022년도 사업에 대해 정산이 진행 중인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가를 정옥희 위원님과 장지원 위원님께서 작년에 해당 축제를 모니터링 하시고 평가의견을 주셨습니다.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면, “전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콩쿠르 외에 부대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각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부족했다.” 다만 이 축제가 가지고 있는 예술현장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가 우려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올해 20회를 맞고 있는 사업이나 상근인력과 기획성, 전문성은 아직까지 축적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이 교부될 때 저희 쪽에서 환류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조치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평가지표는 81쪽 중간에 있는 해당 내용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의 규모는 총사업비가 8억 6,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관기관은 ‘서울국제문화교류회’고요. 허영일 집행위원장과 현재 사업자대표는 김성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기금이 6억 5,000만 원, 자체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 및 기타 수입과 민간후원금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내용들도 사업정산 때는 별도로 정산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큰 줄기의 구성들은 국제콩쿠르가 진행되고요. 해외예선부터 국내예선 그리고 민족춤 페스티벌, 컨템포러리, 안무 페스티벌 그리고 학술행사, 월드갈라 공연 등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진행되는 축제사업입니다. 이상 사무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누가 나오시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오늘 발표자는 김주연 진행팀장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누구시라고 했죠?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저는 콩쿠르 사무국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김주연 사무국장님?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아니요, 팀장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김주연 팀장님께서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간단하게 하세요.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후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2004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컨템, 발레, 안무, 민족춤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국내 굴지의 국제경연대회입니다.

본 행사는 경연뿐만 아니라 공연, 교육, 심포지엄을 종합한 국제행사로 국내 유망주들의 해외 무용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무용인들의 자기개발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2023년도 제20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해외예선 영상 심사는 진행이 되었고요. 예선은 5월 24일, 세미파이널은 7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올해는 20주년을 맞이해서 간략히 진행되던 개막식에 개막축하공연까지 더해져서 더욱 행사가 풍부해질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민족춤 페스티벌, 컨템포러리 안무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본선과 결선 경연이 시작되고 이후 폐막식, 시상식을 진행하고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월드갈라를 끝으로 올해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됩니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의 해외 참가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해외의 참가자수가 다소 줄었지만 저희는 해외참가자들이

영상으로 참여해서 경연을 치를 수 있도록 영상 심사를 진행해서 2022년도에는 해외참가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서울국제무용콩쿠르에서는 앞으로 영상으로도 참가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가자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해외 심사위원단의 수도 역시 그 비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경연대회로써 위상을 보여주고 폭넓은 견해로 다양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저희 서울국제무용콩쿠르만의 특색이자 기본방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20주년 기념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카이브 작업은 기록이 중요한 무용예술계의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무용전공생이나 무용예술인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되는 작업으로는 역대 참가자들의 동영상과 공연 동영상 스트리밍, 프로그램북, 사진 등의 도서출판자료 모음, 또 오래된 동영상 자료의 데이터 변환 그리고 키워드를 엑셀화 해서 검색이 쉽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사업인 20주년 갈라는 올해 맞이해서 진행되는 모든 공연사업을 소개하는데 제가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는 표준계약서 작성과 예술인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체부 표준계약서에 맞게 개정해서 번역작업과 법률자문을 동원해서 해외예술인과 예술단체에 적용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고용보험에 대해서는 매년 꾸준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예술가들과 단체들을 상대로 여러 번 상기시키고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미 행사초기부터 행사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에코백이나 다회용 컵 등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모니터링 결과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영상 심사를 진행하면서 해외참가자와 국내참가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대관일정과 시간 안에서 진행하다보니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과 공연장 자체의 규모가 작은 경연장이다 보니 부대시설이 미흡하다는 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대관료에 산정된 예산 비율을 대폭 늘려서 각 경연의 일정을 부문별로 2일에 걸쳐서 진행하고요, 올해는 시간이 부족해서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이 미흡한 점을 꼽으셨는데요. 저희는 예선은 짧게는 6일, 본선의 경우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희가 경연을 진행할 수 있는 대관이 가능한 극장을 찾기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해 동안 경연일정을 협조한 마포아트센터를 대관해서 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극장 내의 부대시설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서 확충은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그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참가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또 다른 사업인 20주년 갈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주년 갈라는 저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진행되는 공연과 행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첫째로 기자간담회와 2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입니다.

기자간담회는 저희 콩쿠르 20주년을 알리고 보도자료 작성을 위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하는 자리고요. 학술심포지엄은 저희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의 지난 20년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20년을 위한 조직성립, 변천 조망 그리고 앞으로의 위상을 제고하고 내실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경영 교수진과 국내 무용계의 비평가, 일본 무용계의 비평가들이 아마 참석해서 저희가 진행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업은 말씀드린 공연입니다.

지금 개막 축하공연부터 민족춤 페스티벌, 컨템포러리 안무 페스티벌이 진행되는데 저희 공연 같은 경우 개막 축하공연을 역대 그랑프리 수상자와 집행위원들이 함께 하는 축하공연이구요. 민족춤 페스티벌은 국내 굴지의 무용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데 이러한 무용가들의 여러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또한 그 다음 날 진행되는 컨템포러리 안무 페스티벌은 역대 각 부문에서 수상한 수상자들의 공연입니다. 콩쿠르에서 수상한 수상자들이 얼마나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일정은 월드갈라 공연입니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초기에 출전해서 수상한 수상자들 중에 세계 각국에서 그 입지를 굳히고 스타로서 발돋움한 무용수들의 공연입니다. 베를린발레단과 아메리칸발레시어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닐 심킨, 일본국립발레단의 수석 후쿠다 게이코, 또 독일의 드레스덴젬퍼발레단의 이상은 등 클래식발레와 컨템포러리 작품을 한국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월드갈라를 끝으로 저희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의 2023년도 사업은 모두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전에 대해서, 김주연 팀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이 사업이 올해 20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 타이틀이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인데 국제무용콩쿠르 그러니까 국제적 행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용계에서는 무용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무용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20회를 해 오는 동안 나온 성과가 있나요?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흔히 저희가 무용을 분류하는 한국무용이나 발레나 컨템포러리에 그치지 않고 안무라는 세션과 한국무용 자체를 민족춤이라는 범위로 넓게 선정해서 여러 나라의 민족춤을 한국에서 선보일 수도 있고 그에 해당하는 무용수들이 한국에 와서 저희의 문화와 한국 관객들을 만나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만남의 장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연들 자체도 단순하게 이뤄지는 공연들이 아니라 조금 더 장르가 다양하고 세계 각국의 무용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저희가 한번에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런데 콩쿠르라는 이름이 사업에 들어갔는데 그게 적절한가요?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사항들은 콩쿠르에 이어지는 부대행사인 것이고요. 콩쿠르에 참여하는 학생들 역시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은 중국 학생들이 사실 제일 많지만 그 외에도 호주, 파라과이, 필리핀 등 저희가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여러 나라의 무용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콩쿠

르에 참여하고 우리나라에 초청되어온 해외의 유명한 심사위원 또 한국의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각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업의 성격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아까 PT한 것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무용인들의 경연의 장이 아니라 외국 갈라 등 공연위주의 설명이 주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제행사인데요. 적어도 국제행사라고 하면 사전에 좀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8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20회면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행사인데요. 그러면 큰 행사인데 국제무용콩쿠르라는 행사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세금이 들어간 행사인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보시나요?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팀장 : 제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진각 위원 : 원래는 대표가 말씀하셔야 하는 자리인데요.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팀장 : 예. 저도 같은 무용계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진행해서 이런 행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학생들이나 제가 무용을 할 때도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발 벗고 나서거나 내가 해외로 나가지 않는 이상 해외의 유명한 무용수들이나 심사위원들, 어느 나라 발레단의 대표를 만나거나 해외의 무용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지가 않았고요. 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발전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학생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가늠하고 어느 정도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각 위원 : 그것은 무용인들 그러니까 무용계의 관점에서 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는 사실 무용인들만을 위한 행사라고 하면 규모가 이렇게 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무용분야의 관객개발 그리고 향유기회 제공 등이 적합하다고 되어 있지만 “과연 그러냐?”라는 것을 여쭙보는 겁니다.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팀장 : 예.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린대로 다른 콩쿠르와는 달리 “왜 이렇게 공연이 많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대행사나 공연을 많이 진행하고 심포지엄이나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저는 풍부하고 다양한 종류의 무용을 선보이다 보니까 일반 관객들을 모으기에는 더 적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미라 위원 : 저는 사실 무용이나 콩쿠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제무용콩쿠르잖아요. 김진각 위원님의 말씀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콩쿠르라는 말로 20년 가까이 해 왔으면 그 콩쿠르의 권위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이 일단 자리매김이 되고 “그런데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기획들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20주년 아카이빙에 반영되는 그런 고

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통 국제콩쿠르라고 하면 저희가 많은 한계를 실질적으로 느끼는데요.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참여하는 것을 모두 '국제'.... 국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타 장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륙별로 정말 진정한 '국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도 20주년을 기획하면서 조금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약간 수치화 되는 자료가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를테면 20년을 하면서 참가하는 참가인수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다는 것과 국제적으로 진출한 콩쿠르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개 나라에서 몇 개 나라로 늘었다는 것 등 수치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향후에 대한 것을 가져간다는 게 조금 더 있으면 국제콩쿠르에 대한 향후 비전을 명쾌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훈경 위원 :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가벼운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무료 공연은 아니죠?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팀장 : 예,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유료관객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팀장 :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훈경 위원 :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팀장 :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훈경 위원 : 자료를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팀장 : 죄송합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유료관객 점유율은 빼고 객석점유율은 얼마나 되나요?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팀장 : 저희 객석점유율은 80% 이상입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80% 이상에서 유료관객 점유율은 얼마나 되는지 아직 모르신다는 거죠?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팀장 : 저희는 공연 자체를 유료로 진행하면서 무료관객을 받는 데 소외계층 아이들이나 그 대상으로 한 몇 개의 좌석 외에는 전체적으로 유료로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훈경 위원 : 예, 그 수치를 좀 알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홍보나 일반 관객들에 대해서도 콩쿠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현장운영적정성 85페이지를 보면 “연락도 되지 않고 홍보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왜 발생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대답을 듣고 다음 질문까지 가겠습니다.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사무국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훈경 위원 : 예,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도 전화를 받지 않고 정보도 찾기 어려웠다. 홈페이지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저희가 홈페이지는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구요. 저희가 올해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도록 리뉴얼을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랬을 수 있고요. 사무국으로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는 그 기간 외에는 상시 근무를 하는 직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타이밍을 조금 줄여서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훈경 위원 :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공연정보에 대한 부분이나 공연을 관람하고자 하는 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연결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는가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을 해 오셨으면 성과에 대한 지표가 명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20년 동안 콩쿠르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톨모델이 있거나 콩쿠르에서 우수한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 혜택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된다면 하는 지표들이 명확해야 20년 동안 해온 행사에 대한 타당성이나 납득성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혜택들에 대한 수치들도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예.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스칼라십 기회로 파리나 베이징 등으로 진행하고 있었구요.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카이브 작업을 위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다음번에는 그 수치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 외에 어떤 혜택들을 받고 있는지 그 혜택의 수치까지 아카이빙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예,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그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예, 아카이빙 자료가 끝나면 가능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갑영 위원 : 서울국제문화교류회가 20년 동안 계속 지원을 받아 왔어요?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올해 예산이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8억 2,500만 원의 예산에 문예진흥기금이 6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80%입니다. 그리고 자체부담은 3,500만 원 정도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0년 동안 해 왔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사실상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이 자리에는 왜 나오셨어요? 아시는 분이 나와야죠.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올해 사업에 대해서만 브리핑을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나온 겁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다른 단체들은 단 몇 천 만원을 따려고 1년 동안 고심해서 심사를 며칠간 받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따요. 그런데 6억 5,000만 원 이상, 우리 기금만 가지고 그렇게 반영되는 사업을 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에 전혀 내용도 파악하고 있지 않은 분이 여기에 오신다는 게 책임감이 있다고 보세요? 여기에 왜 나오셨어요? 여기 대표가 어느 분이시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사업자는 김성재 대표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위원장은 허영일 교수님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그분들이 왜 안 나오셨어요? 실무 파트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실무진이 나오면 대답을 더 정확하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저희도 실무진 쪽에서 사업에 대한 집행내용들을 더 잘 알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전혀 사업내용에 대해서 파악도 못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왜 나오신 건가요? 그리고 단적으로 제가 국회 문광위 상임위원으로 있을 당시부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요. 때로는 지원도 해줬어요. 그때 지원하는 조건이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라.” 그런데 20년 동안 아직까지도 이게 국회지정사업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국회지정사업이 뭔지 아세요?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어떤 거예요?

김주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진행팀장 : 국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을, 소위 말하는 쪽지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겁니다.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대표자가 와서 의원들을 붙들고 사정사정해서 만든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와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을 붙들고 얘기해서 예산을 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니까 20년 동안 아직까지도 국회지정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이 과연 책임감 있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20년 동안 해오면서 아직까지 플랫폼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아니 아카이브 작업을 왜 해야 됩니까? 플랫폼이 처음부터 구축되어 있으면 거기에 다 기록해 놓으면 그게 아카이브죠. 20년이 되어야 아카이브 작업을 따로 합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세계무용계에서 이것을 얼마나 알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안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아직 저희가 교부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정산 절차 이후에 교부가 가능하고요. 보고 이후에 사업개선(안)을 갖고 와야지 교부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일단 보류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전부 다 정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20년 동안 해 왔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하면 왜 반영을 안 해 주겠어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내년에는 국회에서 아무리 예산이 넘어와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돌아가세요. 지적된 사항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어떻게 개선하고 내년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 다시 국회지정사업으로 넘어올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가서 대표자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제가 이것은 장인주 위원님께 물어보려고 했어요.

장인주 위원 :부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섭외되어 왔나요? 누가 오기로 되어 있었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사실 지금 사무국의 구성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동안 진행되면서 전담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자가 사실 없습니다.

장인주 위원 : 그것은 너무 잘 알죠. 최소한 여기에 보면 상근직원이 있잖아요. 이분이라도 오셨어야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지금 실질적으로 상근 역할을 하고 있는 집행팀장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정병국 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아까 국회지정사업 보고를 3시에 받기로 했었기 때문에 잠시 회의 순서를 뛰어넘었는데요. 일곱 번째 의결안건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의결안건인 제1005호 예술후원 활성화 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결과 및 제2차 회의결과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부위원으로 활동하시는 3인 외에 3인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합니다.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대상자 3인의 인적사항은 표와 같은데요.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무총장, 강명진 (주)두루두루아티스트컴퍼니 대표이사, 김민지 언더스탠드에비뉴 자문위원 등 3인을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11개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입니다. 2023년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입니다. 체육기금을 통해서 원로예술인공연지원 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본 사업은 체육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사업의 목적은 원로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수 문학, 공연들을 개발하고 향유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 경과 사항을 보시면 2022년도에 9억 4,000만 원의 사업 규모로 28개 단체가 선정되어서 공연이 진행되었고요. 2023년 올해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 3,000만 원을 갖고 지원 예정할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안은 위원장님의 결재를 득했고 현재 문체부에 사업 교부 통지를 저희가 검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로예술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부터 정산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본 건은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사업들은 유형①의 실연자, 제작진 그리고 유형②의 창작자 대상 등을 택일해서 저희한테 지원신청을 하면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 역시 지역균형제가 적용되는 대상사업으로 올해 공모에 선정되었던 26%를 지역에 반드시 선정해서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1쪽을 보시면 세부 사항이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보고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수립 현황 보고에 대해서 류재수 기획조정부장님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현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107쪽의 일정을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1월에 중기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의결해 주셨습니다. 중기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2024년도 전체 국가살림을 보고 지출한도를 주게 되고요. 그 한도에 맞춰서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문체부에서 편성하는 과정이 5월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기재부와 예산 협의가 8월에서 9월까지 넘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대응하게 됩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수립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출한도가 통보돼서 왔는데요. 올해 사업비가 3,845억인데 지출한도는 3,485억으로 거의 10% 정도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기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체부 전체가 다 같습니다. 그 다음은 내년도 국정과제와 정부기조 아젠다 사업 중심으로 증액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지역소멸대응, 두 번째가 취약계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

출활성화가 지금 강조되고 있는데 저희 예술극이나 문예진흥기금에는 지역소멸대응이나 취약계층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편성할 때는 창작과 향유의 예산 불균형은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향유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창작 예산은 정체 혹은 상대적으로 증액의 폭이 적거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춰달라고 기재부에 설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공통적으로 집행률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 집행률 부진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것은 소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증액사업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크게 늘었던 예술·기술융합 등은 그 비율을 조금 줄여서 다른 창작예산에 일부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정과제로 살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재부 예산에서 다시 그 부분이 증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를 받았던 국회증액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감액을 하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3번의 문예기금 주요 요구현황을 보시면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창작여건의 개선을 위해, 지금은 지역소멸대응이 이슈이기 때문에 지역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부각해서 사업을 증액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14차례 현장업무보고 때 현장에서 있었던 요구사항들을 각 부서에서 녹여내어 사업설명자료에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100쪽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로 노후시설 리모델링 추진 관련해서 이 부분도 중점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코예술극장 리모델링 외에 우리 아르코예술극장이 대학로의 앵커 시설로써 기능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현장 업무보고나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교류 확대에서 인바운드 국제교류 플랫폼 등의 활동의 확대를 중점으로 담았습니다.

네 번째로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이나 소비 활성화를 통한 창작재원의 총량 확대라는 측면에서 후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예산 사업들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향유사업입니다.

문화누리카드가 올해 11만 원인데요. 내년에는 국정과제 로드맵에 따라서 12만 원으로 증액하게 되는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나는예술여행이나 방방곡곡문화공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취약계층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요구하게 된 게, 103쪽을 보시면 올해 3,845억인데 한도 외까지 하면 1,044억이 되고요. 2023년 예산 대비로 하면 684억을 증액 요청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의 희망 사항이고 이것은 문체부와 기재부를 계속 설득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문예기금으로 재교부 나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기관혁신계획에 반영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나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 나가는 재교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양하는 것으로 기재부 혁신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기재부의 예산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모릅니다. 계속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105쪽입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이 되는데 1월부터 4월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술기금, 문예기금 사업에는 지역문화예술지원 그리고 수탁받는 사업 중에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관광자원화,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창작지원, 인력육성, 문화예술향유지원 등 사업이 있는데요. 위에 보시게 되면 평가결과는 우수가 4개, 보통이 3개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미흡이 없으면 삭감할 때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첫 단추는 잘 꿰어놓은 상태입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 ‘미흡’사업이 없음에 따라서 의무지출구조조정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06쪽을 보시면 예술분과 그러니까 예술분과라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국 사업에서 하는 일반회계 사업과 저희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다 함께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결과입니다. 보시면 저희 문예기금 사업이 우수사업 5개 중에서 4개로 1, 2, 3, 4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술창작지원이나 인력육성은 보통 등급에서 6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향유지원은 이전에는 점수가 좋았다가 떨어졌는데요. 작년에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을 전원으로 하면서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외에 보조사업 자율평가나 재정사업 심층평가들도 다 감안이 돼서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 설명자료는 위원님들께 별도의 파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것을 보시고 혹시라도 예산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 기획조정부나 각 사업부서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답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사업계획 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관료지원사업이나 공연예술제는 이 내용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한도 외 요구금액이 있잖아요? 그 요구금액은 전년도에서 반영된 %가 어떻게 되었나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그것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배은주 위원 : 전체로 통합해서 나온 것은 없고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그러니까 부처 심사를 하게 되면 한도 내·외는 구분이 없어집니다. 구분이 없어지는 거고 일단 10% 삭감한 과정에서 정부의 아젠다 사업에 매치가 더 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전체적으로 세목별로 놓고 정부가 중점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그대로 통과. 나머지는 잘라서 총액에서 얼마를 감액하여 거기에 맞추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가서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라서 해서 올려서 잘라내는 게 편성과정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장미진 위원 : 참고자료로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을 논의하고 계시다는 뜻인가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이 부분은 작년도 공공기관혁신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서 지금 기재부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025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도 “일반회계로 넘겨 달

라.”라는 요구를 계속 했거든요. 그럼에도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혁신계획에 기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힘을 쥐서 하려고 합니다.

장미진 위원 : 가능성이 좀 높은가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년보다는 높습니다.

장미진 위원 :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술인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이번에는 평가를 받지 않았는데요. 올해 증액이 되면 평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그런데 융자사업은 보조사업과 달리 별도의 트랙으로 합니다.

장미진 위원 : 여기에 소액사업으로 평가대상 제외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105쪽입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이것은 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영비도 예술인복지재단에 11억 정도가 나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미진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증액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나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상관이 없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리고 ‘함께누리’ 지원사업은 문체부의 직접사업 아닌가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배은주 위원 : 함께누리 사업은 문체부의 직접사업으로 일반회계죠?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거잖아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배은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평가에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이 끌리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그러니까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여러 가지 평가기준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률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계획 대비 집행이 잘 안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요. 문화부 전체 사업들 중에서 순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우리 것 중에 제일 나쁜 건 문화예술향유지원이 제일 나쁘게 나오고 대다수는 순위가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좋게 나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른 기관에

켰던 사업이 잘 안 되면 우리 위원회로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일들을 잘 하니까 여기로 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1원도 늘려주지 않으면서 자꾸만 받게 되니까 직원들은 로드가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가 구력도 있고 훈련도 잘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생 기관들에 비해서 일들을 잘한다는 겁니다.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전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향유지원 같은 경우 순위가 16위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뭐냐 하면, 카드를 발급하잖아요. 카드발급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270만 명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6세 이상은 11만 원짜리 카드를 줍니다. 카드를 줬는데 그중에는 병원에 누워서 거동을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독거노인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따지길래, 며칠 전에 이 자리에 평가를 하러 평가위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모두발언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점수를 매기면 제일 어려운 일을 하는 부서의 사람들이 늘 제일 저평가를 받는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모르겠어요.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까지 고안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가맹점에서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카드를 아무 곳에서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골 같은 곳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 차를 타고 나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예술인력양성부에 청년예술인들에게 푸드 트럭과 같이 문화상품 트럭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공연을 현장에 가서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객행위를 하고 현장에서 문화상품을 팔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창업을 유도해 보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안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1차 회의 결과보고를 정갑영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108쪽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4월 10일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온라인 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은 저희 비상임위원 3인과 사무처 8인으로 총 11인이 했고요. 안전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2024년 기금운용계획 편성 진행 상황 보고인데요. 이것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 한도로 인해 예산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금을 재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50년사 편찬에 대한 사업계획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안전인 기금운용계획 편성은 기획조정부에서 설명을 했어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늘었다는 얘기를 해 줘서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있었는데요. 쉽지는 않겠지만 위원회의 정책 차원에서 왜 늘고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 항목을 조정하고 이래서 정책상 이 부분은 늘고 이 부분은 줄었다는 것을 해 달라.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0년사 편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홍보에 관한 부분인데 홍보에 관한 부분을 KBS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는 그 부분이 효과적이고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진행했던

것이고요. 김진각 위원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들은 KBS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창구를 모색해 보자. 특히 네이버나 OTT 등도 있으니 시청률이 낮은 KBS 다큐멘터리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다소 의견 차이가 있었습디만, 우리 정책혁신부에서 추후에 가능성을 알아보기로 하고 의견을 주신 김진각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얻고 그 결과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서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정갑영 위원님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큐를 우리가 만들어서 OTT나 네이버 등 포탈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재미있게 만드느냐? 정말 우리가 자신 있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찾아서 볼 수 있게 한다면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그냥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지상파가 요즘 전혀 시청률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런 게 있구나.”라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스치다가도 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다른 콘텐츠와 다르게 다큐는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는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KBS, 그래도 KBS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콘텐츠는, 다른 OTT는 올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만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일단은 지상파에 한번 반영되었던 것과 안되었던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차원에서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팀에서의 의견은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사업을 어떻게든 이루어나가는 성과를 지향하는 쪽에서 보는 관점이고요. 위원님들은 조금 더 꿈이 큰 것이죠. 홍보효과도 있고 전파가 이 기회에 되었으면 좋겠다. 위원회를 아는 사람이 좀 없으니까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전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말씀하신 대로.

김진각 위원 : 조금 보충을 드리자면, 사실 OTT를 제안한 이유는 우리가 문화예술이라는 영역 장르는 결국 타깃을 누구로 하느냐? 앞으로 문화예술을 끌고 갈 사람이 MZ세대라고 봤을 때 그 MZ세대가 가장 빠져 있는 플랫폼은 OTT밖에 없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OTT를 통한 확산이 목적이구요. 다큐라는 것은 딱딱하지만 재미있게 만들면 충분히 50주년 기념에서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충분한 기회가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저도 CJ 쪽의 고위층과 개별적으로 알아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창호 부장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하여튼 소위원회에서 협의를 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리·인권 소위원회 1차 회의 결과보고입니다. 장미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저희도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논드릴 일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

니다.

첫 번째로 블랙리스트가 저희 소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 TF도 만들어지고 협의회도 만들어지고 여러 번 사과발표도 있었고 소송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문제가 있어서 기억사업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극장 측에서 그 당시에 피해를 보신 분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저희 소위에서 나왔던 안건 중에 하나는 이번 11월 중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성과만 얘기하지 말고 블랙에 관한 결과보고나 앞으로의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한 꼭지가 들어가면 어떠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논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불공정행위나 부정수급이 꽤 많다고 합니다. 계약하신 분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요. 거의 환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최소한 다음 지원에서 배제하는 요인으로는 작용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다고 해서요. 혹시 지원심의제도개선 TF에서 이런 것을 참고하고 계시는지를 여쭙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이 굉장히 낮잖아요. 10% 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원전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사무처에 30~40분 이상 옥설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었다고 해서요. 일단 어느 정도인지 현황 파악은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부서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강력한 민원전화가 왔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수집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3가지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갑영 위원 : 50주년 기념사업은 어차피 경영전략 소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미진 위원 : 괜히 또 너무 크게 하면 굵어 부스럼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갑영 위원 : 그렇다고 해서 50주년 기념사업에 한다는 것은 좀.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훈경 위원 : 약간 첨언을 드리자면 블랙리스트 얘기를 50주년에 저희가 넣었던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거나 기타 등등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된 성과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블랙리스트를 해결했던 또는 어떤 사과를 했거나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이런 성과들도 냈다는 것 정도는 얘기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50주년 행사에 “잘한 부분들은 조금 칭찬은 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갑영 위원 :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블랙이 우리 위원회만 걸려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부가 당사자고요. 해결 주체고 처음이자 끝이기 때문에 문화부와 같이 얘기

를 해서 가면 되고요. 50주년은 지난 50년 동안 문예진흥기금과 문예진흥원, 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문화예술이 발전을 했고 앞으로 50년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큰 주제가 자칫하면 본 주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서 별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 발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나올 수가 있겠지만 하나의 꼭지로 간다는 것은, 50주년 행사를 하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차차 논의를 해 보죠.

정병국 위원장 :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시고요. 사무처 악성 민원에 대해서 법적조치는 안 해요?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쌍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녹취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조치를 해야죠.

김효은 노조위원장 : 저도 10년을 외부 민원응대를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희의 고객인 예술가들께서 저희 예술행정 직원을 대하는 인식수준도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한 민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저희가 갑자기 중간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실추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선 전화를 그 이후에 많이 받습니다. 이것은 인식수준은 많이 올라와서 서울문화재단이나 다른 데에서는 잘 하시다가 예술위원회 직원에게는 유독 가혹한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지원총괄부와 이 얘기를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공유하면서 나눴고, 직원 민원응대 관련이라 노조와 같이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해서요. 얼마 전 정병국 위원장님과 단협 체결한 내용 중에 저희가 공동 업무시간이 10부터 5시인데요. 민원응대 업무시간을 공동 근무시간 내로 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보조사업 민원만요.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행정업무를 보겠다는 겁니다. 정상근무를 하든 야근을 하든요. 그런 기관 차원의 직원을 보호하는 절차도 조금씩 추진되고 있고요. 실제로 전화응대 태도도 궁금해 하셔서 저희가 전화응대 교육을 매년 받습니다. 신규직원이 오면 받고요. 그래서 전화응대 교육을 받고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도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받아줬을 때 저희 감사실을 통해서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구체적인 사례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현황을 한번 노조와 지원총괄부가 함께 보기로 했으니까 현황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직원 응대라든가 강력한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차원의 어떤 것들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민원전화를 받는 시간에 안내 멘트가 나가잖아요? 안내 멘트가 나갈 때 노동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욕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나가는데 우리는 안 나가요?

김효은 노조위원장 : 현재 멘트에는 안 나갑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을 당연히 넣어야죠.

김효은 노조위원장 : 그 멘트도 인재성장부와 저희가 단협 내용을 시행해야 하니까 그것은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저희가 전화응대에 저희 직원이 하도 그런 것들에 시달리니까 콜센터처럼 “선생님 전화 끊겠습니다.” 이것을 3번 하고 끊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보호장치는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놓고 이제는 엄격하게 처리를 하세요. 마냥 시달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러고들 있어요.

김진각 위원 : 그런 전화가 불특정 다수입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중심으로 오나요? 그것은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효은 노조위원장 : 부서마다 차원이 다른데요. 향유사업 같은 경우 누리카드는 전국민 대상이다 보니까 발급 사용자가 거의이고 콜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직원을 통해서도 접수되는데요. 저희 직원들은 동사무소 직원들도 응대를 해야 되고 당연히 부처관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 응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창작지원 부서들은 대체로 예술가들인데요. 단체는 좀 낫습니다. 대응하는 게 보통 교부와 정산에 대해서 있는데요. 개인 창작자들이 개인적으로 정산을 보거나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악성민원이 주로 문화향유 쪽에서 “내가 이것을 못 받았다.”

김진각 위원 : 일반인이네요.

정병국 위원장 : 일반인이죠. 난동을 피우는 사람도 있네요.

정정숙 위원 :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무처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들에 대한 선정률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도별 선정률 그리고 예를 들어 사업별 또는 장르별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서서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제공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예술계를 대표해서 누군가가 뭔가를 물었을 때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자꾸 오해가 축적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다음번에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제가 처음에는 어디에서 보고를 받을 때 “10%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터뷰를 해서 10%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정 위원님이 파악하신 건 23%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것은 20%대로 정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말은 장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장르별로 연도별로 3년치 정도는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주세요.

송시경 사무처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아니면 되는대로 바로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은 정확히 말하면 24.5%고요. 건수는 1만 2,000건에서 1만 3,000건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윤리·인권 소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에서 다른 소위원회와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하시도록 하고요. 다음은 심의제도운영개선 TF 2차 회의 결과보고에 대해서 장인주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주 위원 : 심의제도운영개선 TF 팀장을 맡고 있는 장인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전회의를 1번 했고 1차·2차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아직은 큰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회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보다는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가장 핵심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현장보고를 할 때도 확인을 하셨듯이 전 분야에 걸쳐서 심의제도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심의제도에 대한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친 불신이죠.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회의 중에도 위원님께서 심의제도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내부에서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면 외부에 계신 분들은 심의제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절차가 있었다는 것인지 당○년히 모르겠죠. 그만큼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불신이 쌓이고요. 그래서 심의제도운영개선의 핵심 취지는 심의제도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신뢰를 얻는 것만큼은 저희가 큰 틀을 짜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다고 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핵심 방향이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지금 지원사업 구조 전체적인 개편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사실 지원사업이 뛰어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심의제도도 존재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수한 심의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원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심의제도 개편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사업 구조가 개편되는 안을 최대한 반영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의제도도 개선하자는 핵심 방향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세부적인 안들은 아무래도 6월 회의 정도는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간이라도 아이디어가 있거나 제시하실 자안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 TF팀에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심의제도 TF팀의 결과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후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심의제도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마찬가지로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적어도 예술위원회에서 선정된 작품이라고 하면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작품이다. 그게 연극이든 무용이든 미술이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품을 오픈했을 때 가서 보면 “이 작품이 예술위 지원에 선정될 정도의 작품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이것은 심의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평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심의제도를 논의하면서 평가의 문제까지 같이 녹여 들어가야 신뢰가 쌓이지 예술위가 선정한 지원 작품이 “합량 미달이다.”, “수준이 낮다.”, “예술성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스크린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내가 재네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돼?”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야 합니까? 그 얘기를 제일 많

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전통분야에 계신 분들이 “저게 어떻게 전통이냐?” 그러니까 전통을 기본에 깔고 새롭게 변화하는 것은 되지만 오로지 전통예술만 하시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좋으나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참 답을 하기가 굉장히 궁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의위원 풀부터 전면 개혁을 하고 일단 심의위원 풀에 들어간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분야에서 심의위원을 꼭 해 주셔야 될 분들이 “재가 해서 나는 안 한다.”라는 분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레벨에 놓느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지 않고는 계속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과기술융합구축 TF에 대해서 김미라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예, 115페이지입니다. 예술과기술융합구축 TF는 비상임위원으로 정종열 위원님과 제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유관부처, 사무처직원들 10여 명이 회의 때마다 번갈아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리해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 TF팀의 목표는 첫 번째로 현재 조성 중인 당인리 문화공간 내에서 융합예술 거점 공간 마련에 대한 것과 두 번째로는 현재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공간 중에서 융합예술 작품을 시연 하기 위한 특화 공간 마련 방안을 연구하는 2가지로 목표를 명시화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3월 8일에 저희가 킥오프 미팅을 시작해서 2~3주에 한번씩 예술과기술융합 오프라인 소위를 진행해서 실무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1차, 2차 소위를 통해서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을 예술과기술융합 특화 공간으로 조성하려면 어떠한 실질적인 것들이 필요한지? 그래서 무대나 조명, 음향 등 필요 시스템에 대한 운영자문을 외부에서 받았습니다. 이 운영자문위원들은 이를테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라든가 기존 융복합 공간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셨던 각 분야의 외부 기술자문위원님들을 모셔서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과 실질적으로 늘 하지만 불필요했던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자문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무대기술부에서 소극장 리모델링(안)을 115페이지 아래와 같이 각 분야에 대해서 받았고요. 이런 분야의 의견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리모델링(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에 연구용역 계약을 완료했구요. 이 결과보고서는 7월 중순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당인리의 문화공간 융합예술 거점 공간 마련과 관련해서는 지난 3차 회의 때 현재 까지 추진되었던 당인리 문화공간에 대한 예술기술융합랩의 추진경과들을 회의 내에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토론이 있었고요. 그 토론을 통해서 이것을 단단하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해서 이제까지 의견이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향후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식화해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가 융합예술부의 예산으로 5월 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용역 내에는 당인리 문화공간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기술융합랩에 대한 구체적인 공간, 특징, 차이 그리고 현재 어떻게 공간을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같은 게 담길 것이고요. 당인리의 융합기술랩이 현재 조성을 연구 중인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의 공간과는 어떻게 차별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일정은 5월 23일에 예술-기술 매칭데이 행사가 있어서요. 보통은 셋째 주 금요일에 저희가 주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날은 매칭데이 행사가 있는 5월 23일에 4차 행사를 잡아서 매칭데이 행사를 보고 난 이후에 저희가 5월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때는 출장을 갔다 오신 이후라서 당인리 문화공간에 대한 해외 리서치 사례들에 대한 것을 뜨끈뜨끈하게 공유하고 현재 유관부서에서 예술-기술 관련 협업사업들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술과기술융합기반구축 TF 보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이 TF에만 해당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소위원회나 TF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여쭙보고 싶은 게 2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위원회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2개만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기금과 관련된, 후원과 관련된 소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7기 대비해서 지금 소위원회 운영이 내부위원과 내부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되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1회, 2회인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단계로 보여서 어떤 염려도 없습니다만, 7기 때 현장 소위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예술계 인사들이 소위에 직접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7기 대비 8기가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 소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소위원회 외부위원을 넣었을 경우 공식적으로 공지를 해서 외부위원을 선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외부위원들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부담이 없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자문위원으로 모시면 되니까요. 그러나 조금 힘은 들더라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개방성 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차원에서는 외부위원 시스템도 한번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라 위원 : 일단 저희 예술기술 TF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말씀하신 그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TF를 해 보니까 지금 예술기술 쪽 관련해서 가장 급한 것은 저희가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정리해서 이것을 연말 예산안에 올리려면 그 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도 융합공간으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을 해야 할지? 어떤 시스템을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했고요. 당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TF 팀에 비해서 3월과 4월에 자주 오프라인 모임을 했던 편이고요. 현재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밖에 안 했지만 연구용역을 2개나 낸 이유가 상반기에 그것을 정리해서 결과치를 7월에 받아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일정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 때 외부 자문을 받은 이유는 실질적인 것으로 필요한 것과 꼭 해야 되는 데 불필요한 지점 등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받았습시다.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이 상반기에 정리가 되고 나면 실제로 예술과기술에 대한 사업들과 방향들

이 나올 것이고 처음 생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좋을지에 대한 것을 할 때는 말씀하신 외부자문위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력 풀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4개 분야를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정숙 위원 : 소위원회가 3개고요. TF가 3개로 6개입니다.

배은주 위원 : 그리고 외부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자문위원이 아니라 비상임으로 외부위원들을 저희가 같이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정정숙 위원 : 그러니까 외부위원이 있고요.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도 있는데요. 소위원회에서도 필요하면 언제라도 자문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렇죠.

정정숙 위원 : 그러니까 외부위원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거고요. 자문은 사안별로 그때그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회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배은주 위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외부위원을 몇 %로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게 아닌니까?

정정숙 위원 : 반드시는 아닙니다.

배은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른 TF팀이나 다른 소위는 보고를 했고요.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는데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아까 주요 사항은 의결안건으로 저희가 올렸던 외부위원 3인에 대한 위촉사항에 대해서 올렸고요. 회의내용은 김진각 위원장님께서 첨언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후원활성화 소위원회는 외부위원 위촉 상태고 9월에 있을 예술후원 페스티벌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많이 논의했고요. 다음 회의 때는 외부위원을 모시고 활동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결안건으로 올렸기 때문에 보고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지금 3개 운영하고 있고 TF팀은 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3개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하나가 뭐죠?

김진각 위원 : 뉴서울CC 골프장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뉴서울CC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건 없으신가요?

홍성태 위원 :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경영개선을 위해서 외부진단 기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심사를 하는데 딱 1개밖에 없어서 다시 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경영진단 기업을 영입해서 우리의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얻고, 그다음에 우리 TF는 구성했는데 외부진단 기업을 어차피 영입해야 할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지금 소위원회를 운영하시는 위원장님들께서 완전히 구성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이것을 확대하실 건지?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것을 다음 회의 때는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회가 경영전략 소위원회 같은 경우 진단이 나오면 조직개편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나 세분화 돼서 쪼개진 부분들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려고 하면 부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요. 지난번 대국민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책 고객들로부터 들어온 여러 가지 사안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지난 달에 최소로 인사를 했습니다만, 전면적인 인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직과 관련돼서 진단을 한번 해 주시고요. 하반기 초반에 필요하다고 하면 전면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조직이 계속 위축되어 있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것을 일대 혁신을 해서 의욕적으로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각 위원회나 TF별로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활성화 소위도 저희가 9월에 대국민 캠페인을 야외공연과 콘서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공연이 위주가 아니라 공연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수단이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후원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대국민 캠페인을 할 것인가? 문예진흥기금을 만들기 위한 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조금씩 속도를 내면 미리 홍보가 되어 그때 가서 정점을 찍고 쪽 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인주 위원 : 제가 소위원회나 TF의 외부위원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7기 때도 소위원회는 외부위원들이 있었는데요. TF는 사무처와 내부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유지하자는 말씀은 아닌데요. 굳이 TF까지 외부위원을 둘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요. 저희 심의제도개선 TF 같은 경우 첫 번째 회의를 자문위원으로 7기 위원 중에서 이원재 위원님과 홍태림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오래 하셨던 분을 모시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TF는 그런 자문위원 형식으로 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보다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켰을 때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원회의 위원장님이나 TF의 팀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장미진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예술과기술 TF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서요.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700만 원이 맞나요? 이걸로 조사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예술-기술 매칭데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시면 TF의 사람이 아니어도 참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미라 위원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0만 원 연구용역이 적은 연구비로 가능했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이것을 해 왔던 곳에서 이 타당성 조사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술-기술 매칭데이에 대해서는 예술-기술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계속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예술단체나 팀들에서 기술기반 팀이나 사업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조금 방향을 바꿔서 일단 1차적으로 기술기반 중에서 예술 쪽에서 많이 찾는, 예를 들면 AR, VR이라든가 3D 팀들에 대한 것을 지원공모를 받아서 1차로 기술기반 기업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팀들이 이날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그 발표하는 것을 이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팀들이 와서 같이 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술 쪽에서 “우리는 기술기반으로 선정된 팀들 중에서 이 팀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향후 또 한번 예술 쪽 팀들에게 공모를 받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기반 사업에 대한 기업들을 잘 모르니까 예술위에서 아예 기술기반을 먼저 선정해서 예술 쪽에 소개를 하고 매칭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작년 대비 개선방안으로 나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월 23일에 가서 어떤 기술기반들이 매칭을 위해서 발표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오셔서 보시는 것은 아마 자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술서비스 기업들을 이번 주 화요일에 공모를 마쳤고요. 심의가 끝나고 나면 50개 기업들이 선정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실은 사전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아트앤테크를 하시는 예술가나 단체들이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과 이러한 스튜디오, 이러한 기계가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세요.”라고 한 다음에 기업들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는 예술가들이 자기들이 찾는 기업, 장소, 장비를 쓰겠다고 하면 바우처 형식으로 예술위원회에서 그 기업과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주는 형식으로 해서 예술가와 단체들이 그 기술을 활용하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1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타일까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행사 전체는 이틀 정도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TF 회의가 1시간 정도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장미진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보고사항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2023년도 5월 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정병국 위원장 : 5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5월 26일 11시 30분에 간담회 겸 오찬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아르코미술관 3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요원 감사님이 지난 2년 8개월 동안 예술위의 상임감사로 재직을 하셨는데요. 오늘 임기를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감사가 5월에 임명되어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요원 감사님이 재직하시는 동안 저하고는 일한 기간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회의 때마다 그리고 간간히 제가 많은 자문을 구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위원회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아쉽습니다. 남요원 감사님이 재직하시는 동안 문체부 공공기관 자체감사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자체감사활동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를 해주셨고, 반부패청렴추진단 운영,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신설 등 내부 청렴도 향상에 공헌하신 바가 매우 큼니다. 그래서 제355차 위원회 전체회의 폐회에 앞서서 제 8대 상임감사이신 남요원 감사님의 임기종료를 맞이해서 감사패 및 꽃다발 증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및 꽃다발 증정)

8.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이상으로 제35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종료)